

내가 만들어 가는 미래



내가 만들어 가는 미래

나의 이야기
김희연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차례

4 한국에 오기까지

16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29 나의 미래를 갈고 닦으며



한국에 오기까지

처음 한국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요.

왜와 함께 온 가족이요.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한 번만이라도.

어릴 때 추억이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왜는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어릴 때 왜와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